

수원시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저소득 취약계층에 반찬나눔 및 안부확인

김동수 기자 | 승인 2023.08.11 14:10



▲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복을 맞이하여 지난 10일 2023년 특화사업 '사랑하리! 나누리! 행복하리! 반찬나눔 8월 행사'로 여름과일(수박, 복숭아)과 절편, 식혜를 배달하며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했다. © 뉴스피크

[뉴스피크]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복을 맞이하여 지난 10일 2023년 특화사업 '사랑하리! 나누리! 행복하리! 반찬나눔 8월 행사'로 여름과일(수박, 복숭아)과 절편, 식혜를 배달하며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했다.

특히, 이 날은 지속되는 폭염 및 태풍 북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홀몸어르신 가구 및 사례관리 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음식을 배달하며 안전을 함께 살폈다. 위원들은 냉방기기(에어컨, 선풍기) 유무 확인을 비롯해 무더위 쉼터(관내 경로당) 이용안내, 온열질환 및 태풍 대처법 등을 안내했다.

조성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“제철과일과 음식으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. 지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에 잘 대처하여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공영화 영통2동장은 “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.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동수 기자